



# 해외양돈뉴스

- 홍 보 부 -

## 작년 돼지고기 수입량 21.1% 감소

- 11월까지 481,147톤 수입

일본은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481,147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했다. 이는 96년 동기보다 21.1% 감소한 수치다.

국별로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한 양을 보면, 덴마크가 140,144톤으로 가장 많은 양을 수출했으며, 그 다음이 미국으로 125,064톤을 수출했다. 3위는 캐나다로 49,744톤을 수출했으며, 대만이 47,536톤으로 4위, 우리나라가 44,397톤으로 5위를 차지했다.

이 기간중 대만은 돼지구제역 발생으로 전년 동기예 비해 79.9%나 수출량이 감소했으며, 미국은 7.2% 감소했다. 그러나 이 기간중 우리나라는 수출량이 32.6%나 증가해 증가율 면에서 가장 앞섰으며, 캐나다와 덴마크도 각각 31.4%와 20% 늘어났다.

일본이 수입한 돼지고기는 냉장육이 전체의 24.6%인 118,291톤, 냉동육이 75.4%인 362,856톤을 차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9,527톤의 냉장육과 34,870톤의 돼지고기를 수출, 냉장육과 냉동육의 비율이 21.5% : 78.5%를 나타냈다.

<표>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실적(97.1-11)

(단위 : 톤, ( )안은 전년 동기비 %)

구 분	대 만	덴 마 크	미 국	캐 나 다	한 국	기 타	합 계
냉 장 육	12,341 (16.6)	250	81,209 (113.0)	14,276 (213.2)	9,527 (225.6)	688	118,291 (75.2)
냉 동 육	35,205 (21.7)	139,894 (119.9)	43,855 (69.8)	35,468 (113.8)	34,870 (119.2)	73,564	362,856 (80.2)
합 계	47,536 (20.1)	140,144 (120.0)	125,064 (92.8)	49,744 (131.4)	44,397 (132.6)	74,262	481,147 (78.9)

특히 우리나라는 이 기간중 냉장육 수출이 125.6%나 급증한 반면, 냉동육은 19.2% 증가하는데 머물러, 냉장육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 금년 1~3월 사료가격 톤당 1300엔 인상

일본 전농은 지난해 '97년 12월 18일 금년 1월~3월중 배합사료 가격을 전축중 평균 톤당 약 1300엔 정도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전농은 배합사료 가격 인상이 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월~3월 기간에 안정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격인상의 요인은 중국에서 가뭄에 의한 곡물 생산량 감소로 수출 여력이 약화되었고, 엘리뇨 현상으로 남미 등에서 가격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달러에 대한 엔화가 약세를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일본 행사, 미국에 모돈 5만5천두 규모 양돈장 건립

일본 험사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양돈사업을

시작했으며, 모두가 증가하는 99년경부터 일본으로 수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일본 햄사는 2000년에는 모든 5만5천두 체계를 갖춰, 연간 출하두수를 110만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양돈장의 부지는 4,500ha이고 투자액은 1억7천만 달러라고 밝혔다.

일본 햄사가 텍사스주를 양돈장 부지로 선택한 이유는 광대한 토지와 환경문제 미발생, 곡물의 생산지로서 안정된 가격으로 곡물을 입수, 완벽에 가까운 방역체제 등을 들었다.

일본 햄사는 양돈장 건립과 함께 총 1천1백만불을 투자하여 사료공장 건설에도 착수했으며, 2단계로 연간 40만톤의 사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도축장 건설을 위한 조사도 시작하였다. 도축장 규모는 일일 도축두수 6천두 규모로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을 도입한다고 한다.

## 후생성 “전염병” 용어 “감염증”으로 변경

일본 후생성은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 현재 검토중인 새 법의 명칭에 “전염병” 대신에 “감염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관련 법조문 용어에도 모두 감염증으로 통일키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 미국 미 상원, 가축 배설물 환경오염 심각 지적

미국 유타주에서 현재 건설중인 2만ha 규모의 돼지 농장 1곳이 로스앤젤레스시 전체보다 더 많은 오염물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97년 12월 29일 미 상원 조사 보고서가 밝혔다.

톱 하킨 상원의원(민주당, 아이오와주)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양의 가축 분뇨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협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말하고, “일부 축산농장은 1개 대도시보다 더 많

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지적했다.

미 상원 농업위원회 보고서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가축 오염물의 양이 사람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양의 1백30배에 달한다”고 밝히고, “대규모 축산농장의 증가로 오염물 유출의 위험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축산농장들에 대한 국가환경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내 하천의 60%가 축산농장의 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96년 1년간 약 40여 차례의 가축 오염물질 유출로 아이오와, 미네소타, 미주리주에서 67만마리의 물고기가 죽었다”고 지적했다.

## 육류 수출금지 문제로 EU와 무역갈등 심화

EU가 동물 부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데 대해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미국은 EU가 동물 부산물 가운데 광우병과 관련있다고 여겨지는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의 수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약 140억불 상당의 무역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스투어트 아이젠스타트 국무차관은 지난해 11월 5일 브뤼셀에서 미국은 인체에 아무런 위험도 없는 미국산 약품과 화장품이 EU에 수입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유럽 각국이 광우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미국이 인정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유럽산 육류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 '97년 12월 13일 밝혔다.

미국 농무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쇠고기, 양고기, 송아지고기, 특히 육류의 내장, 뇌, 척수 등을 대상으로 하나,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제외된다. 아이젠스타트 차관은 이 문제는 미국과 EU가 당장 풀어야 할 가장 큰 무역 문제이며,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할 뜻을 시

사했다.

## 98년 돼지고기 생산량 8.3% 증가 예상

미국은 98년도에 돼지 사육두수의 증가로 돼지고기 생산량이 97년에 비해 8.3% 증가한 8백 38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농무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돼지 사육두수는 작년들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만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이후 미국산 돼지고기의 일본시장 진출이 놀라운 성장속도를 보여왔고 이러한 이유로 돈육가격이 약간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들어 돼지 사육두수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13일 중서부 지역의 생돈가격은 100kg 당 97달러로 연중 최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약 22달러나 하락한 수치다.

## 덴마크 97년 생돈 수출량 100만두 예상

97년 덴마크의 생돈 수출이 호조를 보여, 연간 약 100만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덴마크는 96년도에 자돈 43만8천두, 비육돈 18만8천두 등 총 69만5천두의 생돈을 수출했는데, 지난해에는 이보다 약 30만두나 늘어난 100만두를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는 지난해 9월까지 약 83만7천두의 생돈을 수출했다.

## EU 98년 돼지고기 생산량 다소 증가 할 듯

97년초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돼지콜레라 감염 여파로 인해, EU의 97년 돼지고기 생산량이 1% 정도 감소해 1,620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97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약 23% 감소한 125만톤으로 예상되고 독일과 덴마크, 영국은 각각 1%, 3%,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98년에는 1/4분기에 1% 넘게 감소한 이후 2/4분기 이후에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총 2% 정도 증가한 1,650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98년 2/4분기에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연평균 기준으로 보면 작년보다 떨어지는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국가들은 프랑스 1%에서 스페인 7%까지 다양한 비율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호주 2-3년후 돼지고기 수출 3만톤으로 확대 계획

호주의 양돈업계는 대만의 구제역 발생을 기회로 일본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을 2~3년안에 연 3만톤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호주는 지난 96, 97년도에 약 8천6백톤의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등 수출량이 미미했으나, 대만의 구제역 발생 이후 수출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호주 국내 돼지가격은 97년 10월 31일 현재 지육 kg당 1.6~2.2달러를 보이고 있다.

한편, 호주 양돈업계에는 대규모 업체들도 양돈에 진출, 수출인가를 취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육가공공장 2개소가 신설되어 도축능력도 향상되고 있다.

## AMLC 본부 사옥 이전

호주식육축산공사(AMLC)는 지난 97년 12월 22일 본부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전한 주소는 165 Walker Street North Sydney, NSW 2060 Australia이며, 전화는

(61-2)9463-9333, FAX는 (61-2)9463-9393이다. **養豚**